

보살의 길

2008년 겨울호 제 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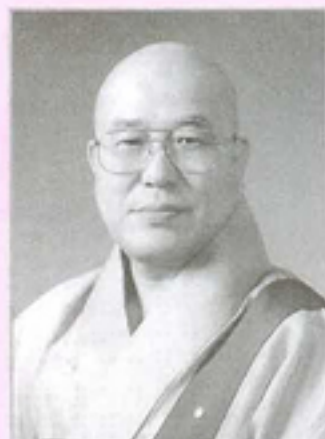


2008년 12월 10일 후원자·자원봉사 송년회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존경하는 후원자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고 흘러갑니다.

무자년은 시련과 고통의 한 해이었습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에 찬바람이 불어 닥쳐 마음을 시리게 했습니다!

온 세계가 경제적 불황을 헤쳐 가고자 지혜를 짜내 시련을 극복하고 경제적 흑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체념과 恨(한)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지친 한숨을 내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해명양로원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자님의 자비가 양로원의 어르신과 직원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시고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넉넉지 못한 家計(가계)를 조계 양로원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한 정을 주시고 후원하여 주신 후원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 왔습니다, 우리는 묵은 한해의 체념과 절망, 한을 지우고 새로운 해를 열어가야 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자신의 흠결을 성찰할 줄도 아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모두 시간의 遺産(유산)으로 남겨 졌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담대한 희망으로 새 것을 맞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應形無窮(응형무궁)이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즉 “쉽 없이 변화는 상황에 맞춰 뜻을 이루자는” 의미입니다. 있으면 있는 데로 없으면 없는 데로 그 현실에 맞춰 어려움을 이겨 내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

지금 어렵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요행을 바라고 삶을 운영하면 요행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자고로 높은 지혜는 위기 때 요행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어려울수록 지혜를 모아 요행을 버리고 이 난관을 극복하여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

다음과 같은 법어로 인사말씀을 가름 하고자 합니다.

同體大悲(동체대비) 즉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大慈大悲(대자대비)가 우리 사회에 씨가 되어 자랄 수 있도록 성심과 노력을 다하여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후원자님의 가정에 만복이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己丑 元년에 원장 박 재 근 (玄桴)

삶에 밑거름이 될 실습

권 연 회
(한국디지털대학교 4학년)

실습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실습 마지막 날이다. 처음 이곳 '혜명양로원'에 들어섰을 때 그 느낌이며 분위기가 실습 마치는 날까지도 계속 되었다.

편안하고 넉넉하여 조용하고 모난 곳 없는 분위기다. 밝게 웃으시며 낭랑한 목소리로 반겨주시던 슈퍼바이저 선생님이 물심양면으로 이끌어 주셨기에 이렇게 무사히 실습을 끝낼 수 있는 듯 하다.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 주위의 힘들고 가엾은 사람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몰랐고, 다 자라서는 나 살기도 바쁘다는 핑계를 마음속으로부터 들이대며 나 몰라라 하고 지내온 시간들.. 그래도 혹시 어찌다가 정말..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있는 길거리의 사람을 보고도 다른 사람의 눈길이 부끄러워 외면했던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온 나에게 사회복지학이라는 낯설고도 어려운 배움이 다가온 것은 그리 머지않은 이야기이다. 불혹의 나이에 앞으로 다가올 나이 들어서의 미래가 불분명하고 정해진 것이 없어 이렇게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미래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도 있었지만 그래도 한 번 시작한 공부이니 하는데 까지 해보자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 하지만 몸소

현장을 체험하고 실재를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나니 포기 안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가진 것 많이 없어도 서로 나누며 격려하고, 그 어떤 상황이라도 어르신 모시기를 기꺼이 하며 살아가는 기관의 선생님들과 자원 봉사자 분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믿고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부끄러운 생각마저 든다. '혜명양로원'은 나에게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혼

훈한 정다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이곳엔 주위에 아무도 없거나 혹은 친지와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분들이 그래도 서로가 자신의 가족처럼 그렇게 부딪히며 위로하며 지내고 계신다. 너무 연로하여 몸이 많이 편찮은 어르신도 계시고, 또한 갖가지 노인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을 많이 보았다.

모두가 안타깝고 마음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도 아팠다. 그 동안 그 분들에게 잘해드리고 좋은 위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혜명양로원'에서의 실습 생활은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있어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 곳 어르신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으시고 그 분들의 과거를 모두 잊고 살 수 있을 만큼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끝으로 이렇게 실습할 수 있게 해주신 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 시간



김 설 (공익근무요원)

2006년 드디어 공익 신청을 하게 되었다.

신청 30분전부터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신청 시작 하자마자 장소를 선택 할 수 있었다. 그 장소는 바로 혜명 양로원, 드디어 2006년부터 2009년 까지 내가 있을 곳이 정해 진 것이다. 2006년 12월 드디어 훈련소를 마치고 혜명 양로원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날씨도 추웠다. 게다가 그날은 많은 양의 눈이 내렸었고 첫날 출근 하자마자 많은 양의 눈을 치웠다.

첫날이라 아무것도 몰랐다 그리고 힘들었으며 이제 2년 2개월을 어떻게 보내나 싶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자 마음 한 편에서 불안함에 가려져 있던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망이 전면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나의 직속상관인 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으셨다.

그 날 이후로 나는 후임의 임무를 배우게 되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할아버지들 목욕을 도와 드리는 일이었다.

힘든 일이었지만 목욕을 도와 드리면서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이야기를 나누면 할아버지들께서 좋아 하시며 웃으시는 그 모습이 나의 피로를 가져갔다.

그 후에 선생님께서 목욕 후 자주 주시는 음료수는 나에게 웃음을 주었다.

그렇게 1년 2개월이 지난 후 나는 후임을 맞이했고 나는 선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물론 선임 이라고 해봐야 바뀌는 것은 별로 없지만 어쨌든 나는 선임의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고 이제 2009년 초에 소집 해제를 하게 된다.

지금 시점에서 공익 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경험을 쌓았고 많은 것을 얻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봉사에 대한 즐거움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좋았다.

해명한마당



| 소방안전교육 |

11월 5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직원과 어르신들이 함께 우리생활에서 알아두어야 하는 소방교육을 받으며 다시한번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 장 |

11월 26일부터 27까지 양일간 김장 600포기를 대한적십자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해마다 추운날 굶은일 마다 하지 않고 양로원의 김장을 책임져 주시는 대한적십자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청소년연합회 자원봉사 |

11월 16일 대한청소년연합회에서 자원봉사를 나왔습니다. 오전부터 발맞사지, 청소, 공연을 보여주시며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 직원교육 |

12월 4일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노인학대 교육을 했습니다. 노인학대는 대단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 묻혀 자칫 넘어갈 수 있는 작은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 후원자·자원봉사자 송년회 |

12월 10일 후원자·자원봉사자 송년회가 있었습니다. 2008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주신 여러분을 모시고 공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으며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 KTF 방문공연 |

12월 19일 KTF사에서 주관 한 공연팀이 마술과 전통무용, 통기타 공연을 보여 주셨고 어르신들께 목도리를 선물로 주어 따뜻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 어르신 송년회 |

12월 20일 어르신과 직원들이 송년회를 했습니다. 1년 동안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석한 어르신께 감사장도 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 피복구입 |

12월 22일 어르신들께 하반기 피복구입을 하여 나눠 드렸습니다. 추운겨울 따뜻한 옷으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건강히 보내세요.



| 뮤지컬 관람 |

12월 23일 "크리스마스 캐롤" 뮤지컬을 예술예전당에서 재미있게 관람했습니다.



혜명동정



◆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 입소대상(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 직원현황

- ▶ 총 16명
- 원장 1명
- 간호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사무국장 1명
- 영양사 1명
- 위생원 1명
- 시설과장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서무 1명

◆ 현재 입소인원(12월 31일 기준)

- ▶ 총 64명
- 할아버지 : 28명
- 할머니 : 36명

2008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역사회 후원금	25,066,820	사무비	10,320,424
		사업비	4,395,130
		프로그램 사업비	1,209,500
합계	25,066,820	합계	15,925,054



자원봉사자

2008년 10월 1일 ~ 12월 31일

동국대한방병원, 이승희·강은향, 박은주, 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류은경, 유미애, 한미경, 정은숙, 박영숙, 양영진, 김경은, 최의자(밀그림색칠), 문덕녀, 홍순자, 박상화(대림미용실), 이푸름, 김병호(영등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 6명(치과진료), 김미경(종이접기), 금천보건소, 윤순재(사랑의모임국악팀), 조규용, 고병득, 윤소원, 조맹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신도님들, 천종임(경기민요), 김하늘(차밍댄스), 장옥순(맷돌체조), 묵향법사, 지영옥, 김상영, 묵향, 신세왕, 최미자, 이순교, 김덕문,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찬불가봉사팀), 홍은석, 황숙희, 김영희, 선재심, 윤명심, 손정숙, 배현순, 장소순, 이호경, 전별문, 최정혜, 최현임, 마정임(반야회1기),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재(반야회3기), 박미란(말벗),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전초이, 안성수(우담바라), 김도연(이야기시간), 이정순, 고병님, 전선순, 소미숙, 한종님(한글교실), 조청길, 임영희, 안현숙, 장미숙(수지침), 최원재, 유정일(한방침술), 최숙자(민요), 김진화, 천명두, 박애하, 마경숙, 하정자, 이경화, 오우리, 박미자, 김순자, 문현옥, 권재숙, 정금녕(반야회4기)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금천자원봉사센터, 정득성, 농림수산식품부, (주)신영프리티전, 금천구청, 혜명보육원, 백련사, SJ일레콤 안양스님, 홍인규, 서울시청, KTF, 박재근, 봉명사, 서서울생활과학고, 대영정공, 금천푸드뱅크, 보명사, 동일여고혜명회(찬불가), 혜명복지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국승우, 인천보살님, 박월서, 공덕암(시흥4동), 이윤분, ※ 12월19일 김이환, 신영숙 내외분께서 제주밀감을 헌성정사에 22상자, 혜명양로원, 보육원에 각 8상자를 보시했습니다.

지로후원

윤재순 90,000	문금자 30,000	구봉순 310,000	이정호 10,000	서현종스님 30,000
김기영 300,000	구충수 300,000	백승룡 60,000	임옥수 300,000	은선사 10,000
김해광 20,000	나영균 30,000	이장원 10,000		

현금후원

한노협 62,100	박성수 90,000	금천경찰서 300,000	이복자 20,000	청담어린이집 65,000
최형기 40,000	권기상 200,000	한진택 30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조성한 40,000	유규동 30,000	안효주 600,000	백련사 500,000	조원정 300,000
마희전 60,000	박동필 20,000	전정자 10,000	이순자 60,000	증권선물거래소 800,000
한국청소년육성회 200,000		유석하 15,000	이경옥 10,000	만들레봉사회 5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00,000		전삼숙 10,000	황영희 5,000	(주)신영프리티전 500,000
이중보 100,000	사회복지법인 망월원 1,000,000		이재임 5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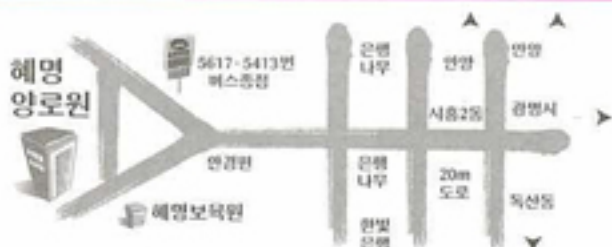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시흥역마을버스금천01번 범일운수중점 하차
- 지하철 2호선:구로디지털역 5617번 중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중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